

용병제도를 통해 본 츠빙글리 종교개혁의 사회 경제적 배경

정미현 (연세대)

I. 들어가는 말

스위스의 용병전통은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스위스의 한 랜드마크 (landmarks)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를 여행할 때면 즐겨 들리는 곳 중에 루체른 “빈사의 사자상(Löwendenkmal)”¹⁾이 있다. 루체른은 내지 스위스(Inner Schweiz)에 속하는 곳으로써 전통적으로 용병에 적극 가담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곳이다. 빈사의 사자상은 1792년 프랑스 혁명당시 루이 16세 왕가를 수호하다가 전멸한 760여명의 스위스 용병들의 죽음을 기리는 의미로 세워졌다. 프랑스의 왕정 수비대는 오히려 그들의 왕을 지키지 않고 도망갔던 반면, 스위스 용병들은 루이 16세 왕가의 가족들을 지키고자 장렬히 전사하고, 살아남았던 이들은 왕이 의회 광장으로 끌려가는데 호위를 하고 나서 모두 처형되었던 역사적 사실

1) 이 작품은 1821년 덴마크의 조각가 베르텔 토르발드센(Bertel Thorvaldsen)이 설계하고 스위스의 조각가 우어스 판크라츠 에겐슈빌러(Urs Pankraz Eggenschwiler)와 루카스 아호른(Lukas Ahorn)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http://www.luzern.com/de/sehenswuerdigkeiten/loewendenkmal> (2015년 9월 5일 방문).

이 이 사자상의 배경이다. 슬픈 표정과 모양을 한 사자의 조각상 위에 라틴어로 “*Helvetiorum fidei ac virtuti* (스위스 사람들의 신의와 용기)”를 새겨 넣어 이들의 용맹과 충성을 기리며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오늘날 스위스 용병의 역사적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는 또 다른 곳은 로마 바티칸 교황수비대의 모습이다.²⁾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러한 스위스의 용병제도의 흔적들은 단순한 볼거리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위스인들이 오랫동안 간직한 “신의와 용기”의 상징성을 이 안에 담고 있다.

이처럼 스위스의 관광상품과 국가적 이미지의 한 요소로 등장한 용병제도는 스위스 역사의 어두운 일면이 긍정적 가치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이 용병제도는 스위스의 종교개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착안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개신교 종교개혁가로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인물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이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장로교는 마르틴 루터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역사적으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마르틴 루터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홀드리히 츠빙글리(Huldreich Zwingli 1484-1531)가 장로교의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라는 국가의 규모와 배경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나라 규모가 작고 한국과의 교류 연도가 짧은 스위스의 츠빙글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³⁾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

2) 이 교황 수비대는 현재 스위스 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어가는 전통이며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영예롭게 생각하여 지원 경쟁률이 높다. 이 교황 수비대에는 스위스 군인의 정규 과정을 마치고, 신실한 가톨릭 신앙을 지닌, 건장한 체격과 품행이 단정한 젊은이가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다.

<http://www.guardiasvizzera.va/content/guardiasvizzera/de.html> (2015년 10월 10일 방문).

3) 지금까지 츠빙글리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정미현,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츠빙글리 윤리의 현대적 적용』, 『기독교 사회윤리』 31(2015):217-249; 조용석, 『츠빙글리와 하나님 중심주의: 신성의 보존을 위한 교의학적 기획』, 『신학논단』 65(2011):233-253; 조용석, 『츠빙글리의 역병기(Pestlied) 연구』, 『장신논단』 Vol.46 No.2: 2014, 115-135.

에서 스위스 종교개혁자 가운데서 츠빙글리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그의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용병제도를 둘러싼 시대상황과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II. 용병제도와 스위스의 사회, 경제적 상황

중세기에 유럽의 국왕들과 교황의 권력 투쟁 욕구는 다양하게 드러났다. 교황이 서임권을 갖고서 태양과 같이 군림하던 절정기인 중세기에도 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교황의 권력에 맞서는 세속적 국왕의 권력이 점차 강화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황과 프랑스 왕의 갈등과 영토, 권력 확장을 위한 전쟁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스위스는 용병제도를 통하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거기서 수입을 얻게 되었다.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는가 하는 개인적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가톨릭 사상과 대립하고 종교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반면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조국의 젊은이들이 각기 프랑스왕과 교황을 위하여 용병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곳에 오늘날의 직제와 용어로 표현하면 군중사제로 동참하면서 종교개혁을 준비하였다. 그는 전장에서 느꼈던 비애와 교회의 위선과 모순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본격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사회개혁보다는 개인적 차원을 더 중시하고 시작되었던 것에 비해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그 시작부터 용병제도와 연관된 구조적 사회개혁과 맞물려 있었다. 이처럼 용병제도는 츠빙글리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했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사회문제가자 상황이었기 때문에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을 파악하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주목되어야 할 중요한 단서이다.

16세기 초기 스위스는 교황으로부터 용병 파병 요청과 압력을 받게 되었다.⁴⁾ 다른 한편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 연방은 오랜 내분과 투쟁 끝에

프랑스와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521년 5월 사람들은 프랑스 왕과 교황과의 전쟁에 투입되는 용병제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역사적으로 용병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고 좋은 평판을 받았던 스위스 인들은⁵⁾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용병금지법으로 정부가 막아낼 수는 없었다. 당시 취리히는 다른 12개의 주요통치도시들과는 달리 반 프랑스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취리히가 프랑스와의 연합을 거부하게 된 것은 츠빙글리의 공헌 때문이며, 이 사건은 그를 교황 정책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그렇지만 그는 종교개혁가로 부상하면서, 교황과 절연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교황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교황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취리히의 대 평의회와 소 평의회는 교황을 위해 수비군을 보내주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교황이 수비군으로만 스위스 용병들을 쓰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교회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이들 병력을 공격용으로 투입하게 되자, 프랑스 왕 편에서 싸우는 연방의 동포들과의 살육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후 취리히 평의회는 교황 사망을 계기로 용병을 철회하고 군사들을 귀환시켰다. 마침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후에 취리히 평의회는 츠빙글리의 지도력 아래에서 1522년 1월 11일 엄격한 용병금지령을 발족시켰고, 그해 11월 15일 이것은 금지법으로 바뀌어 외세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철저히 막아내도록 법이 더욱 강화되었다.⁶⁾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스위스 내지 5개 지역은 용병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반면에 취리히나 도시인들은 다른 수입원이 있었으므로 용병제와 연금제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고 종속되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은 지형적 특성상 내지 스위스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

- 4)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홀드리히 츠빙글리』, (서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신학연구소, 1999), 109.
- 5) 스위스 연방인들은 사보이 왕국이 위치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외에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등지에도 용병으로 진출하였다.
- 6)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110-112.

이었다. 그래서 츠빙글리의 종교 개혁적 시도는 스위스 내지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대란을 의미할 수 있었다. 츠빙글리는 용병지지자와 연금 수령자와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동일시하였고 이러한 그의 신념은 초지일관 변함이 없었다.⁷⁾

14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스위스 연방에서 백삼십 만에서 백오십만 정도의 남자들이 용병에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귀향한 생존자는 약 30%에 이르렀다. 용병제가 절정에 이르렀던 1500년 무렵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10-12퍼센트가 용병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평균 3-4퍼센트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용병제를 극렬히 반대하고 문제시했던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은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용병 참여율은 종교개혁 이후 차츰 감소해 갔고, 18세기 이후에는 스위스 내지 칸톤에서도 용병참가율이 2퍼센트가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⁸⁾

요한 하인리히 바저(Johann Heinrich Waser)의 연구에 따르면 15세기와 18세기 사이에 프랑스 왕을 위하여 싸웠던 스위스 젊은이들은 매해 약 22,000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평균 복무 연한은 6년 정도 되었는데, 용병에 참가했던 젊은이들 가운데 약 44%만 귀향했고, 15%는 부상당한 상태로 돌아왔으며 29% 정도만 실제로 다시 정상적으로 일상적 삶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⁹⁾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용병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신체 상해, 사망 등으로 빚어진 경제적 손익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손실이 훨씬 컸다는 것이다.¹⁰⁾ 이것은 용병에 젊은이들이 투입되는 것보다 농업

7)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위의 책, 276.

8) Hans Conrad Peyer, "Die wirtschaftliche Bedeutung der fremden Dienste für die Schweiz vom 15. bis zum 18. Jahrhundert", *Könige, Stadt und Kapital. Aufsätze zur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des Mittelalters*, (Zürich: Neue Zürcher Zeitung, 1982), 219-231; Historischer Verein des Kantons Schwyz (hg.), *Herren und Bauern 1550-1712. Geschichte des Kantons Schwyz*, Band 3, (Zürich: Chronos, 2012), 71; Hans Rudolf Fuhrer, Robert-Peter Eyer, *Schweizer in Fremden Diensten*, (Zürich: Neue Zürcher Zeitung, 2006), 9.

9) Hans Conrad Peyer, *ibid.*, 219.

과 수공업, 스위스 국경 수비 등에 비중을 두기를 더 원했고 이런 형태의 노동체제로 전환을 주장했던 츠빙글리를 비롯한 종교개혁주의자들과 인문주의자들의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내용들이 다.

츠빙글리는 본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서 평화주의를 추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본격적으로 용병제를 반대하고, 스위스 연방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는 상황 윤리적 차원에서 용병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초기에 그가 지녔던 에라스무스적 입장에서의 원칙 주의적 평화주의 혹은 평화 절대주의에서 벗어나 “정당전쟁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¹⁾ 그렇다고 해서 츠빙글리가 평화를 지향하던 기본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전쟁에 대한 츠빙글리의 견해를 다음의 인용문에서 읽어낼 수 있겠다.

“만약 우리가 전쟁의 폭력을 우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의를 위해 사용한다면, 또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 법질서를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외국 군주의 종이 된다면, 그리고 죄 없는 나라를 약탈하고 점령하고 황폐화시킨다면 당신의 주장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돈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될 지도자들, 곧 교황과 주교들과 수도원장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¹²⁾

10) Hans Conrad Peyer, op.cit., 220.

11) Ulrich Zwingli, *Schriften* III, hrsg. v. Thomas Brunnschweiler u. Samuel Lutz(et.al), (Zürich: TVZ, 1995), 7-29.

12)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슈비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1522)』,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25-126.

그는 전쟁 그 자체를 선동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지향했던 것은 스위스의 전통적 미덕을 수호하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표방하지만, 원칙적인 비폭력주의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수행하고 관철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³⁾

III. 음식 규정에 대한 츠빙글리의 비판¹⁴⁾

츠빙글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재정적, 도덕적 종속구조 때문에 용병에 참가하고 연금을 받기 위하여 지배층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구조적으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였다. 용병제도와 관련해서 츠빙글리가 언급한 내용을 그의 후계자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다.

“가축을 잡아먹는 늑대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늑대를 잡으러 몰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늑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항도 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늑대들이 빨간 모자와 외투를 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이들을 잡아 흔들면 금화와 은화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틀어 짜면 당신의 아들과 형제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친구들의 피가 새나올 것입니다.”¹⁵⁾

츠빙글리는 용병제를 옹호하고 유지시킨 교회 지도부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구조적 부정의의를 말하였고 공유된 책임성을 중요시하였다. 구조적 부정의의 발생을 막으려면 집단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용병제

13)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위의 책, 281.

14)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자유로운 음식 규정에 대하여』, 『츠빙글리 저작선집 I』(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47-106.

15)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위의 책, 104.

도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던 다수의 책임의식부재와 이 과정에서 생겨진 신흥귀족과 교회 지도부의 소수 이익집단이 축적되어지는 부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러한 체제를 용인하고, 지속시켰던 문제가 아울러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이를 묵인하여 용병제도를 인정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의식도 문제였다. 츠빙글리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했던 방법은 용병제의 모순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용병중개업과 연금 수령으로 이득을 챙기던 집단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그 책임을 물었으며, 직접적인 당사자들이자, 희생자들인 젊은이들에게는 용병제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 문제성을 알려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적 문제를 취리히 시의회를 통하여 단계적이며,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힘썼다.

용병제도의 모순과 교회의 부패한 연결고리를 비판하던 츠빙글리는 이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세기 당시 강조되었던 사순절의 금식 규정을 포함한 가톨릭교회의 규례와 율법준수의 문제성과 교회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다. 종교 개혁적 성향을 담은 츠빙글리의 비판적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금식 규례(*die Speiseverbote*)”에 대한 것이었다.¹⁶⁾ 츠빙글리가 본격적으로 취리히 그로스 뮌스터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행하였던 강해설교와 이와 같은 정치적 사안이 담겨있던 비판적 설교가 취리히 시의회에 영향을 입히게 되었고, 이러한 까닭에 1522년 1월부터 용병제의 부분적 폐지가 실행되었다.

중세기의 가장 중요한 교회적 관습과 신앙적 규례가운데 한 가지는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는 금식 규정이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는 사건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취리히의 소시지 사건(*Das Zürcher*

16) 금식 규례의 문제성을 비판한 내용은 츠빙글리의 67개 조항에도 담겨져 있다. Huldrych Zwingli, *Auswahl seiner Schriften*, hrsg. von Edwin Künzli, (Zürich: Zwingliverlag, 1962), 71; 권선중,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정체성 연구: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12.

Wurstessen)”이었다. 츠빙글리의 취리히 종교개혁은 바로 금식규례를 어긴 이 사건으로부터 공식화되어갔다. 문제의 발단은 1522년 사순절 첫 주일인 3월 9일 저녁에 츠빙글리가 배석한 가운데 그를 포함하여 12명의 사람들이 취리히의 출판업자인 크리스토퍼 프로샤우어(Christopher Froschauer 1490-1564)의 집에 모여 소시지를 먹었던 사건이었다.¹⁷⁾ 이 12명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인지델른의 신부이자 후에 성 베드로 교회 목사로 선출된 츠빙글리의 친구 레오 유드(Leo Jud, 1482-1542)와 당시 길드의 도제들과 수공업자등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츠빙글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소시지를 먹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프로샤우어가 식탁에 소시지를 대접한 것은 ‘금식기간 중에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교회가 정한 예외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¹⁸⁾ 츠빙글리 설교의 핵심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던 중세기적인 분위기와 율법으로부터 종속되는 구조로부터 벗어나 복음에 의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었다.

츠빙글리는 사순절일지라도 사람들이 몸에 필요한 육식을 먹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종교적 규례를 어기는 것보다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몰아세우며 그 살을 취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교회 지도층 인사들의 죄는 금식규정을 어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죄악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들을 옹호하면서 츠빙글리는 그로스핀스터 교회 강단에서 1522년 3월 2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금식규례문제에 대하여 설교하였고, 1522년 부활절 직후인 4월 16일 이 설교를 인쇄하여 출판하였다. 그 목적은 첫째, 츠빙글리의 친구들을 주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둘째, 교회의 규정 때문에 동요하는 사람들을 진정하게 하며, 셋째, 자신의 종교개혁적 주제

17)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116.

18) 사무엘 루츠/김걸 역, 『자유로운 음식 규정에 대한 해설』,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43.

들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발표하기 위함이었다.¹⁹⁾ 이 설교를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Die freie Wahl der Speisen, 1522)”²⁰⁾ 라는 글은 츠빙글리가 취리히에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위한 기치를 들게 되는 공식적 문헌이 되었다.

츠빙글리는 사람이 음식을 못 먹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교회가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조건 없이 적용하는 윤리로서 음식 규정이나 금식 등 가변적일 수 있는 것을 시간과 상황을 초월한 율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억지임을 강하게 비판한다.²¹⁾ 이 소시지 사건을 발단으로 취리히 시에서는 종교개혁의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츠빙글리는 취리히 시의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²²⁾

이를 통하여 츠빙글리는 기독교적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종교 개혁적 정신에 입각하여 복음을 해석하는 역할 모델이 되어 주었다. 이와 같이 프로샤우어의 자발적 식사모임에서 출발한 사적 모임은 교회의 공적 교회 갱신운동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마침내 뜻을 같이하는 많은 이들과의 연대적 행동으로 확대되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²³⁾ 면죄부 판매와 용병제로 부를 축적하던 이들 교회 지도층 이익집단과 이를 묵인하고 독려한 전제 군주들에 맞서서 취리히 시의회는 성직자들의 재산축적을 막고 도덕적

19)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자유로운 음식 규정에 대하여』, 『츠빙글리 저작선집 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44.

20)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인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2. 시간적 제한이 없고, 모든 것은 항상 가능하다. 3. 사람들은 자유롭게 금식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부들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성서에 비추어 살펴야 한다. 5.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금식하지 않고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선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45.

21) 위의 글, 103.

22)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위의 책, 119.

23) 사무엘 루츠/임걸 역, 앞의 글, 46.

타락을 방제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치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나섰다. 츙빙글리의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취리히 시의회는 소의원제와 대의원제로 구성되어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합의 구조를 정치에 도입한 모범적 사례였다. 이러한 개혁의 과정을 통하여 츙빙글리는 죄가 개인적 차원과 내면적 성찰로만 축소되지 않게 하고,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눈을 뜨게 만들었다.

IV. 용병제에 대한 츙빙글리의 비판적 사상

면죄부 판매와 용병제도 증개업은 당시 아주 성행하던 교회의 경제적 수입원이었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으나, 곧 이것이 중세 교회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츙빙글리는 스위스 내지 사람들이 용병에 복무하고 복음 설교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그 지역 정치 지도부가 성서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 보고 그런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도시들 사이의 동맹을 제안하면서 외교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²⁴⁾ 그는 용병제도를 폐지하고 스위스 내지의 연금 수령자들을 처벌하고자 하였다. 츙빙글리의 과감함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츙빙글리의 종교개혁적 사상은 기독교 사회윤리의 토대를 놓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²⁵⁾ 그가 남긴 글들 가운데 용병제도를 반대하는 보다 구체적 이유와

24)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240.

25)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그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서는 1525년 3월에 발행된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해설(Commentarius de vera et falsa religione)”이다. 라틴어로 쓰여진 이 글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하여 해설한 내용인데, 서언에 밝힌대로 프랑스 왕 프란츠 1세에게 헌정되었다. 그 시기까지 프랑스 왕의 연금제도를 철저히 비판하였고, 프랑스 왕과의 동맹정책을 완강히 거부하였던 츙빙글리가 자신의 저서를 바로 동일한 왕에게 헌정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의 의도는 프랑스 왕이 자신의 저술을 읽고 동의하여 주며, 프랑스 안에서 종교개혁을 위하여 개방하여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사상을 검토할 수 있는 두 문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슈비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1522)

1521년 스위스 연방과 프랑스 사이에 용병동맹이 맺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취리히는 츠빙글리의 영향으로 용병동맹에 가담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스위스 내에서 용병제도의 철폐나 유지나 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츠빙글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사회, 정치사안으로만 보지 않고,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의 문제로 풀어나가기도 했다. 슈비츠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과 친분관계를 지니기도 했던 그는 이들을 설득하여 갈 수 있었다. 1522년 4월 27일 북이탈리아 비코차(Bicocca) 대재난이라고 불리는 비코차 전투에서 프랑스 군인들이 크게 전멸함으로써 이에 속하여있던 스위스 용병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참사는 스위스 용병제도와 용병 보상제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1522년 5월 18일 용병협상이 있게 되자, 츠빙글리는 용병협상에 반대하는 이들을 돕는 의미에서 이 글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²⁶⁾

츠빙글리는 스위스의 연방인들이 외국의 권력자들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이 글을 써서 호소하였다. 슈비츠(Schwyz)는 그의 고향과 연관된 지역이기 때문에 츠빙글리는 더욱 애착을 갖고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었다.

“우리는 망치와 창으로도 우리를 제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금덩어리를 가지고 우리를 제압할까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1531년에 나온 그의 마지막 저서인 “신앙을 위한 주해(Expositio Fidei)” 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헌정되었다. 그러나 츠빙글리가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프랑스 왕은 츠빙글리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프랑스 안에서 종교개혁을 위한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마르틴 하야스/정미현 역, 위의 책, 166.

26) 한스 울리히 베히톨트/임걸 역, 『해설』,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09-111.

일을 막아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나는 이 글을 어떤 편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그 어떤 권력자의 부탁도 받지 않고 썼으며, 오히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귀한 스위스 연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²⁷⁾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 츠빙글리의 사회윤리적 원칙이 이 글에 담겨져 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기심이 정치적이고 사회적 악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츠빙글리는 “불행한 삶의 방식이 가장 힘든 두려움으로 표현된 것을 용병제도이며, 그에 따른 보상제도이고 속임수와 교만이 그 제도의 본질”²⁸⁾이라 평가하였다. 그는 용병으로 나간 젊은이들을 따라서 전장에 군중사제로 가서 네아펠, 노바라와 마일란드에서 동족상잔의 현실을 보게 된 후에 이 글을 적은 것이었다.

“외국 군주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순전한 스위스 연방제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들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곧 수많은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물과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대신에, 권력자 자신의 소유와 권력을 유지시켜 주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끼치는 위험을 인식하고 막기 위해서 두 눈을 크게 뜨지 않는다면, 그들의 탐욕과 향락욕, 그리고 그들의 무식함과 불순종은 나날이 늘어만 갈 것입니다.”²⁹⁾

27)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슈비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1522)』,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13.

28) 한스 울리히 베히틀트/임걸 역, 앞의 글, 110.

29)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앞의 글, 121.

츠빙글리는 용병의 비도덕성과 잔혹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문제성을 역설함으로써 신의로 다져진 스위스 연방인들이 그들의 충성심과 우직함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

“만약 외국 용병들이 여러분의 땅에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목초지와 포도밭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여러분들의 젖소와 송아지들을 다 쫓아버리고, 집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한데 묶어서 빼앗고, 당신의 딸들을 성폭행하고, 당신의 아내가 그 외국 용병 앞에서 비참하게 엎드려 제발 자기 남편과 가족을 해치지 말라고 사정하지만 무자비하게 용병의 발에 체인다면, 또한 그들이 무서워 숨어있던 당신을 찾아내서 당신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당신이 존경받는 노인인 것도, 그리고 용감한 당신 아내의 고통이나 비명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을 잔인하게 칼로 찢러 죽이려하고, 당신 집과 농장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려고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외국 용병들이 당신의 아들을 때려죽이는 상황을 한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악당들을 잡아 삼키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땅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똑같이 그러한 악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전범재판에 회부될 행동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용감한 병사들의 행위가 바로 잔인한 전쟁 행위라면 도대체 용감한 병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³⁰⁾

츠빙글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용병제와 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집과 땅을 탐욕스럽게 차지하고 부를 늘려가는 불의한 상황에 대해 이사야 5장 8-9절을 인용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30)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결 역, 위의 글, 122.

부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³¹⁾ 츠빙글리는 뇌물을 받고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고, 검소한 생활보다는 허황된 사치에 눈을 돌리게 되며, 땅에서 소출을 얻어내는 건전한 노동을 외면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만약 뇌물을 받은 부패한 사람들이 ‘우리는 외국 군주를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가난한 민족이고 그리고 매우 척박한 땅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말은 현재 우리가 가진 좋은 양식과 옷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걸핍된 그 무엇을 어디에선가 반드시 보충해야 할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경우에 그들은 그와 같이 공색한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우리 땅은 아직도 비옥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 땅에는 능력있고, 성실하며,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 땅은 아직도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히 비옥한 땅입니다.”³²⁾

츠빙글리가 말하고자하는 기독교적 노동윤리의 핵심이 또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 건전한 육체노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을 비판하면서 노동의 중요성과 그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츠빙글리는 연금제도가 체계적으로 뇌물과 용병제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교황과 당시 가톨릭교회 지도부가 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위법성과 그 문제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츠빙글리가 용병파병문제와 더불어 우려했던 또 다른 문제점은 외국과의 교류에서 저급한 문화가 유입되는 것이었다.³³⁾ 이것은 용병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의하여 건강하고 건설적인 문화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

31) 같은 글.

32)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126-127.

33)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129.

히려 사치스런 저급한 문화가 유입되어서 근면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망가지게 될 것을 츠빙글리가 극도로 우려한 것이었다. 츠빙글리가 이 용병을 반대했던 다른 이유는 권력자의 뇌물이 스위스 연방 사람들 안에서 질투와 배반을 일으키고 민족의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또한 용병제도로 연금을 받게 되면서 외국 권력자에 대한 종속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으로써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츠빙글리는 경계하고자 하였다.³⁴⁾ “외국 권력자들에게서 오는 돈을 주의하십시오. 그 돈이 우리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가능한 한 그 돈에서 자유롭게 되십시오...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 악을 고치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우리는 후에 심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³⁵⁾

츠빙글리는 스위스 연방인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를 강화하여 나갈 것을 역설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도록 정의로운 모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아직 우리를 막는 수많은 적대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적대세력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³⁶⁾

이러한 민족주의적 애국심을 담은 글을 슈비츠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츠빙글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음 하고 있다. “슈비츠 지역의 아름다운 명성이 지속되기를, 그리고 외국 권력자에게 용감히 저항하기를!”³⁷⁾ 츠빙글리는 슈비츠 지방정부가 이 글 발표이후 용병계약을 포기하게 하였으나, 1522년 8월 슈비츠 지방정부는 프랑스 영향권에 있던 지역과 정치적으로 다시 연대하며 용병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돌아섰다.³⁸⁾

34)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130.

35)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131.

36)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133.

37) 같은 글.

38) 한스 울리히 베히톨트/임걸 역, 앞의 글, 111.

2. “스위스 연방에 대한 간곡한 경고”³⁹⁾

1524년 츠빙글리는 슈비츠 사람들에게 용병제에 참가하여 민족정신과 육체를 망가트리지 않도록 호소하였던 내용을 더욱 심화시켜서 “스위스 연방에 대한 간곡한 경고”라는 제목의 사회비판적 글을 다시 발표한다. 이 글의 배경은 1524년 4월 20일 스위스 연방인 루체른 의회에서 우리(Uri), 슈비츠(Schwyz), 운터발덴(Unterwalden), 루체른(Luzern), 축(Zug)을 중심으로 하는 스위스 연방동맹이⁴⁰⁾ 결성되었고, 샤프하우젠과 바젤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 회의에서 연방인들 가운데 취리히 시에 반대하고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힘이 집결되었기 때문이다.⁴¹⁾ 연방인들이 프랑스왕과의 동맹 때문에 북이탈리아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의 참화와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을 목격하였던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용병제도를 비판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시도가 스위스 연방동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리히가 고립되어가던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1521년에는 6000명, 1524년에는 8000명의 추가 용병이 파병되었으나 전쟁에 지면서 연방인들의 치명적인 인적 손실만 가져왔고, 프랑스 군대의 전세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⁴²⁾

취리히 시의회는 1524년 4월 27일 12개 스위스 연방에 편지를 발송하고 종교개혁의 입장과 상황을 호소하고 자주적인 길을 모색하도록 동참을 촉구하였다.⁴³⁾ 취리히 시의회의 선언문과는 별도로 츠빙글리는 호소문을 마련하여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었다. 츠빙글리는 이 당시 아주 격렬한 논란이 격화되는 한 복판에 서 있었고 심지어는 이 단시비에 휘말려 있어서 츠빙글리의 실명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39)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370-381.

40) 스위스의 연방동맹은 1291년 우리, 슈비츠, 운터발덴주의 연합체로 생겨났다.

41) 한스 올리히 베히톨드/임걸 역, 『해설』, 『츠빙글리 저작선집 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67.

42) 한스 올리히 베히톨드/임걸 역, 위의 글, 367.

43) 한스 올리히 베히톨드/임걸 역, 위의 글, 368.

“외국에 거주하면서 조국을 걱정하며 스위스 연방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스위스인”⁴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도 츠빙글리는 스위스 연방이 외국 권력자와 연대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과 그 병폐에 대하여 설명하며 용병에 참여하지 않도록 연방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용병제는 외국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 사악한 사회 관습, 사회적 불안, 권력에 종속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한 제후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습성과 경향을 이용하여 일도 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고 결국 가족간, 동료간, 형제간 갈등과 싸움을 부추기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⁵⁾

츠빙글리는 고대 스위스 연방의 조상들이 착취를 일삼던 부패한 귀족을 몰아내고 근면한 노동을 통하여 땅을 경작하여 살아가고 용감하게 외세를 몰아냈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언급한다. “우리 선조들은 교만하고 부도덕한 귀족들을 몰아내었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았고, 용감하게 싸워서 외국의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그들로부터 자유를 찾았습니다.”⁴⁶⁾ 그런데 그 후손들은 방탕하여져서 새로운 귀족계급을 만들어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느라고 돈을 추구하고 그래서 용병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외세의 종이 되어버린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츠빙글리의 눈에 그 당시의 연방인들은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던 조상들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다.⁴⁷⁾ 노동은 천시 받았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람들은 잊어버렸다.

“현재는 아무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저기 널려있는 자기 밭들을 풀만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

44)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스위스 연방에 대한 간곡한 경고(1523)』, 『츠빙글리 저작선집 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70.

45)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372.

46)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372.

47)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373.

다. 아무도 더 이상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땅이 잘 경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⁴⁸⁾

츠빙글리가 농사를 장려하며 스위스의 지형에 맞는 농작법을 말하며, 물물교환 형태로 유통과 경제 순환구조를 말하고 있는 내용도 무척 구체적이다.

“비록 우리 땅에서 계피, 생강, 말바지아 포도, 포도주, 향신료, 오렌지, 비단 등 특별하거나 사치스러운 농작물들이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땅은 버터와 마이스터 양념, 그리고 우유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그 위에서 말과 양 그리고 갈색 소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그리고 튼튼한 면직물과 포도주와 곡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져다주는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러한 농산물을 통해서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꾼 생산물을 여러분에게 부족한 생산물들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⁴⁹⁾

그런데 근면하고 정직한 노동에 바탕을 둔 생산과 유통의 구조가 선하게 작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러한 경제의 순환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널리 퍼져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일하겠다는 사람보다는 놀고먹자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선한 것이며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사람이 방탕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또한 노동은 곡식을 생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그 곡식으로 건전한 양심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8) 같은 글.

49) 같은 글.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의 피 값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양심에 더러운 오점을 남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전한 노동을 통해 생산된 그 곡식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⁵⁰⁾

츠빙글리는 육체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도덕적인 방법이냐, 부당하게 재화를 축적하는 것을 문제시한다.

“육체노동은 우리 몸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며,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병들을 낮게 해 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창조물이 생겨난 것처럼 노동자의 손에서 과일과 작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겉으로 볼 때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⁵¹⁾

츠빙글리는 용병으로 나가서 죽을 위험과 신체의 상해를 감수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과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각적인 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돈으로 스위스 연방의 젊은이들을 유혹하여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들의 부모들은 눈속임으로 현혹시키는 그러한 불의한 구조를 츠빙글리는 직접 그 전쟁터에 참여하여서 간파하였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쉽게 돈을 만지고 버는 사람들의 생활 양태는 사치하고 허례와 허식하며 방탕한 것이어서 결국 이러한 삶은 파산으로 이어져서 모든 재산이 뇌물 제공자에게 넘어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뇌물 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버린 시점에서 재산을 탕진하게 된 사람들은 결국 월급을 받고 전쟁터에 용병으로 다시 팔려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흥귀족과 결탁한 당시의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되던 문제 상황이었다.

50) 같은 글.

51)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373-374.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이 현재 마일란드에 있으며,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병에 고통당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진흙탕 같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권력자들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사형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⁵²⁾

츠빙글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반면에, 이들의 피 값을 바탕으로 소수의 사람들은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회적 위기를 고쳐 나가고자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뇌물을 받지 않으며 우리 연방을 위해 위험에 빠트리는 것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왜냐하면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눈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⁵³⁾ 그런데 그러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방법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자 외국 용병으로 참가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⁵⁴⁾ 그리고 하나님이 스위스 민족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설교함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힘을 얻도록 위로하고 있다.

“비록 악마는 시기하여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조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곳에 지옥이 있고, 또한 모든 위기와 불의가 있습니다.”⁵⁵⁾

츠빙글리는 이기주의와 사리사욕의 추구가 모든 사람의 공동의 선을

52)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376.

53)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372.

54)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380.

55)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381.

위협하는 부정적 요인임을 설명하며, 타자를 무시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서로 힘을 모으십시오 오히려 외국 세력이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만드십시오...외국 세력이 꾸미는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⁵⁶⁾ 그는 민족정신과 종교개혁이 연관되어 나타나게 했으며 종교개혁의 정치,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⁵⁷⁾

츠빙글리는 1524년 5월 2일이라고 날짜가 적힌 이 호소문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스위스 연방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들 앞에 그런 기회를 내어주지 않도록 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권면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끝맺음하고 있다. 츠빙글리가 용병에 반대하는 이유와 사상을 검토할 수 있는 이 두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교회와 사회의 부정부패를 개혁하여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써 추락한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경제 구조적 개혁을 통하여 공공의 선과 신성한 노동윤리를 촉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츠빙글리의 기독교적 사회윤리는 16세기 스위스의 상황에서 뿐 아니라 21세기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지침이라고 하겠다.

V. 베른과 취리히의 종교개혁과 카펠 전투

츠빙글리 종교개혁의 중심지 취리히의 종교 개혁적 시도에 동참하고자

56)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위의 글, 378.

57) 츠빙글리의 사회경제윤리의 중요한 기본 문서 중에 하나인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라는 글은 1524년에 발표된 것이었다. 스위스와 독일 남부의 농민 봉기와 경제 위기의 시대에 그는 영주들의 이기심을 비판하고 공공의 선과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토지와 이자의 제도개선을 위한 수도원의 철폐, 이자제도의 폐지와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한 기금 마련과 사회 강자에 의하여 부가 독식되지 않도록 사회적 체제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홀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88-486.

하는 지역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한 곳은 베른이었다. 그리고 베른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주도한 인물은 니클라우스 마누엘(Niklaus Manuel 약 1484-1530)⁵⁸⁾이었다. 마누엘은 이탈리아의 투린에서 스위스로 이주해 온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는 루터의 영향을 받고 독일에서 왔던 베르크홀트 할러(Berchtold Haller 1492-1536)와 함께 베른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였다.⁵⁹⁾ 가난한 가문 출신이었으나 시 서기 딸과의 결혼으로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이 가능하였던 아버지 때문에 마누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화가가 되었다. 제혁공 길드에 속했던 그는 평의회 의원의 딸과의 결혼으로 일정부분 통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 높은 고위 공직을 받고 싶었던 그의 욕망이 좌절되자 그는 북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하였다. 1522년의 전투에 용병으로 참여했던 그는 용병제를 둘러싼 스위스인의 만행, 기만, 약탈, 살인, 욕설 등에 젖은 모순과 문제 상황을 철저히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뒤 그는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병제도를 부추기는 교황과 가톨릭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마누엘은 그를 추종하는 수공업자들을 움직여서 베른의 도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고, 후에는 농촌지역으로 확산시켜서 베른을 종교개혁의 도시국가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⁶⁰⁾

베른은 이와 같이 종교개혁 사상에 동조하는 이들에 힘입어 1528년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주도자들은 베른 주민들의 보편적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주에 휩싸여 있던 그 지역에서 모두 종교개혁파가 소 평의회와 대 평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다.⁶¹⁾ 마누엘은 교황의 용병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지만 프랑스왕의 정

58) Jakob Baechtold, *Niklaus Manuel, Allgemeine Deutsche Biographie*, Bd. 20, (Leipzig: Duncker & Humblot, 1884), 275 - 280.

59)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위의 책, 201.

60)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201-204.

61)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213.

책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래서 용병제도가 금지되었으나 연금 수령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취리히의 야콥 그레벨(Jakob Grebel 1460-1526)과 베른의 마누엘이 종교개혁을 지지하였으나 연금 받는 것을 아울러 동조했던 대표적 인물이었다.⁶²⁾ 이에 비하여 츠빙글리는 연금을 받는 자들과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을 초지일관 동일시하였다. 결국 취리히는 베른의 공조를 끌어내지 못했고, 베른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누엘은 1529년 6월 3일 강력하게 평화유지를 요구하고 나섰고 그의 연설에 대 평의회 의원들이 동조하게 되었다.⁶³⁾ 평화적인 조정을 하기 원했던 베른이 취리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게 되자⁶⁴⁾ 취리히는 곤경에 처하게 된 채 1차 카펠(Kappel am Albis) 전쟁을 맞았던 것이다. 이 전쟁 중에 구교도와 신교도들이 각자 자기들의 주요 생산품목인 우유와 곡식을 가져와서 우유죽을 끓여 나누어 먹으면서 휴전하였던 카펠의 “우유죽 사건(Milchsuppe)”은 평화적인 조정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⁶⁵⁾

츠빙글리는 민족과 정의를 수호하고자 이 카펠 전쟁에 출정하면서 진심어린 기도로 준비하였다.⁶⁶⁾ 그리고 그는 결국 1531년 10월 11일 2차 카펠 전투에서 사망하게 된다. 당시 가톨릭교도들은 그의 시체를 토막 내어 돼지고기 덩어리와 뒤섞어 태워버렸다. 츠빙글리의 추종자들이 그의 시체를 모셔가서 다시 결집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츠빙글리의 주검을 조롱하

62)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227.

63)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262.

64) 1530년 마누엘의 죽음 이후 베른 정치지도부는 취리히에 우호적이었던 협력관계를 종식하고 보수적인 사람들과 손잡아서 취리히는 종교개혁을 돕는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취리히 종교개혁은 위기에 이르게 되어 1, 2차 카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스위스 내지 가톨릭 진영과는 달리 별다른 군사적 지지 세력을 갖지 못한 채 외롭게 투쟁하게 되었다.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214-216, 273-333.

65)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268-269.

66) Walter Köhler, “Ulrich Zwingli und der Krieg”, *Christliche Welt*, 29 (1915)675-682; Walter J. Hollenweger, *Huldrych Zwingli zwischen Krieg und Frieden. Erzählt von seiner Frau*, (München: Kaiser Ch., 1984), 58; Oskar Farner, *Huldrych Zwingli*, Bd.1-3, (Zürich: Zwingli Verlag, 1943-1960); Ulrich, Zwingli, “Die Vorsehung(1530)”, *Schriften IV*, hrsg. v. Thomas Brunnschweiler u. Samuel Lutz(et.al), (Zürich: TVZ, 1995), 192.

기 위함이었다.⁶⁷⁾ 그가 죽은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가 죽음을 맞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펠에는 그의 죽음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있는데 그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글귀가 새겨져있다.⁶⁸⁾ 실제로 그의 사상은 그의 후계자인 하인리히 불링거⁶⁹⁾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고 그 당시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 오늘날 장로교회(Reformed Church)의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

VI. 결어를 대신하여: “패전으로부터의 구원”

2015년은 치욕적인 스위스 용병역사가 절정에 이르렀던 마리그나노 전투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⁷⁰⁾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아직 츠빙글리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자 가장 핵심적 사안이었던 용병제의 문제점과 그 사회적 배경을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 특별히 스위스 용병제에 대하여 민족주의적 시각과 기독교사회윤리의 측면에서 비판하였던 츠빙글리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조명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페터 보겔장어(Peter Vogelsanger)는 1965년 마리그나노 전투 450주년을 기념하면서 치비도(Zivido)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다. 그는 이 전투에서의

67)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326-327.

68) http://www.zh-kirchenspots.ch/content/e1665/e1666/e6326/e14206/e3297/index_ger.html (2015년 9월 30일 방문).

69) 취리히 시의회가 1531년 12월 9일 불링거를 츠빙글리의 후임으로 선출한 것은 종교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마르틴 하아스/정미현 역, 앞의 책, 333.

70) Unterlagen des Symposiums Tessin, *Marignano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Eidgenossenschaft 1515-2015*, Bellinzona, 29. März 2014, hrsg. von Marino Viganò Stiftung Trivulzio, Mailand, SEB Società Editrice, Chiasso, 2015.

<http://www.marignano1515.ch/index.php?lang=de> (2015년 9월 30일 방문).

패전으로 인하여 이후 스위스가 다른 나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19세기 이후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전화위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패전으로부터의 구원(Ex Clade Salus)”⁷¹⁾이라는 표현을 이 기념비에 새겨 넣었다.⁷²⁾

스위스는 용병제도의 문제성을 비판하고 시작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며 착취의 구조로 내몰아 가던 경제적 불의를 극복하였고, 구조 악에 저항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으며,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관계에서 중립성을 지킴으로써 그 고유한 국가적 가치를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용병제도의 문제를 개선한 것은 종교개혁이 교회 내의 개혁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사회경제적 불의를 치유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한 사건이었으며 평화와 안정을 정착할 수 있게 하였던 개혁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스위스 민족주의적, 국가적, 시간적 경계선을 넘어서, 부정적 가치를 승화시켜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당시 가톨릭 신학자들의 용병에 대한 입장과 가톨릭적 견해에서의 츠빙글리 해석과 비교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용병, 츠빙글리, 스위스 종교개혁, 평화, 정의

71) <http://www.marignano1515.ch/index.php?lang=de> (2015년 9월 30일 방문).

72) 용병제도란 스위스의 암울했던 역사의 한 부분인데 스위스 인들은 그 사실을 도외시하거나 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여 스위스를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성으로 승화시키고 관광산업과 스위스의 이미지를 위하여 활용하였다. 스위스는 용병제에서의 신의를 바탕으로 국가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국가 이름이 곧 명품브랜드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스위스 인들은 평화를 지향하는 기독교의 정신과 츠빙글리의 개혁을 향한 외침을 중시하면서도, 있었던 역사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부정적 가치의 역기능을 건설적인 순기능으로 전환시켰다.

참고문헌

- 권선중.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정체성 연구: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루츠, 사무엘/임걸 역. 『자유로운 음식 규정에 대한 해설』.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베히톨드, 한스 울리히/임걸 역. 『해설』.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정미현.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츠빙글리 윤리의 현대적 적용』. 『기독교사회윤리』31(2015): 217-249.
- 조용석. 『츠빙글리와 하나님 중심주의: 신성의 보존을 위한 교의학적 기획』. 『신학논단』 65(2011): 233-253.
- 조용석. 『츠빙글리의 역병가(Pestlied) 연구』. 『장신논단』 46-2(2014):115-135.
- 츠빙글리, 홀트라이히/임걸 역. 『슈비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1522)』.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츠빙글리, 홀트라이히/임걸 역. 『스위스 연방에 대한 간곡한 경고(1523)』.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츠빙글리, 홀트라이히/임걸 역. 『자유로운 음식 규정에 대하여』.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츠빙글리, 홀트라이히/임걸 역. 『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하아스, 마르틴/정미현 역. 『홀드리히 츠빙글리』. 서울: 한국 기독교장로회 신학연구소, 1999.
- Baechtold, Jakob. *Niklaus Manuel. Allgemeine Deutsche Biographie*. Bd. 20. Leipzig: Duncker & Humblot, 1884, 275 - 280.
- Farner, Oskar. *Huldrych Zwingli*. Bd.1-3. Zürich: Zwingli Verlag, 1943-1960.
- Fuhrer, Hans Rudolf/Eyer, Robert-Peter. *Schweizer in Fremden Diensten*. Zürich: Neue Zürcher Zeitung, 2006.

- Köhler, Walter. “Ulrich Zwingli und der Krieg”. *Christliche Welt*, 29 (1915)675-682.
- Peyer, Hans Conrad. “Die wirtschaftliche Bedeutung der fremden Dienste für die Schweiz vom 15. bis zum 18. Jahrhundert”. *Könige, Stadt und Kapital. Aufsätze zur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des Mittelalters*. Zürich: Neue Zürcher Zeitung, 1982, 219-231.
- Historischer Verein des Kantons Schwyz (hg.). *Herren und Bauern 1550-1712. Geschichte des Kantons Schwyz*. Band 3. Zürich: Chronos, 2012.
- Hollenweger, Walter J.. *Huldrych Zwingli zwischen Krieg und Frieden. Erzählt von seiner Frau*. München: Kaiser Ch., 1984.
- Zwingli, Huldrych. *Auswahl seiner Schriften*. hrsg. von Edwin Künzli. Zürich: Zwingliverlag, 1962.
- Zwingli, Ulrich. *Schriften III*. hrsg. v. Thomas Brunnschweiler u. Samuel Lutz(et.al). Zürich: TVZ, 1995.
- Ders. “Die Vorsehung(1530)”. *Schriften IV*. hrsg. v. Thomas Brunnschweiler u. Samuel Lutz(et.al). Zürich: TVZ, 1995.

인터넷 사이트

- <http://www.luzern.com/de/sehenswuerdigkeiten/loewendenkmal> (2015년 9월 5일 방문)
- <http://www.guardiasvizzera.va/content/guardiasvizzera/de.html> (2015년 10월 10일 방문)
- <http://www.marignano1515.ch/index.php?lang=de> (2015년 9월 30일 방문)

[Résumé]

Mercenaries from the view point of Zwingli as a reformer

Chung, Meehyun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issue of mercenary as seen by Huldreich Zwingli. This article examines the Swiss situation in the Reformation as a background for understanding view Zwingli as a reformer. The Reformation was fully aware of the problem of human oppression and economic exploitation.

Zwingli began the Reformation in 16th century in Zurich, Switzerland, by witnessing the reality of young people being paid to fight in wars as troops who belong to different foreign countries and kill each other. He observed the devastation and the immorality of war while he accompanied soldiers as a priest. He realised the corruption of payments for mercenaries and criticized the unjust economic structure of the Swiss Confederation which depended on foreign forces. It promoted the vicious circle of poverty rather than economic growth.

Based on this collective responsibility he attempted to combine social structural reforms and religious reforms based on the lines of ethics and communal goodness. Speaking with a nationalistic perspective, he urged informing ordinary people about the reality of the problem and kept criticizing corrupt church leaders and the minority ruling class who promoted this system of mercenaries and pension. He tried to get people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humbly and to restore sacred labor for sustainability.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it introduces the mercenary system with a focus on the situation, context and the

emergence of Zurich and Bern. Secondly, it examines fasting rules of the Catholic church and criticizes the hypocrisy of the Catholic church. Thirdly, it investigates two major documents of Zwingli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mercenaries.

Swiss people adapted positive values out of this negative historical event and experience and created diplomatic neutrality for a foreign policy. And also they used and promoted faithfulness as a national-image of Switzerland. How Zwingli's thought is interpreted as a comparative study in the Catholic point of view and how the Catholic theologians evaluate the mercenaries might be a subject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Zwingli, Swiss reformation, peace, justice, mercenary

(논문투고일: 2015.10.28./ 논문심사일: 2015.11.15./ 게재확정일: 2015.12.12)

[저자연락처] gocmh@yonsei.ac.kr